

2) 구암 이정과 승평사은

순천이 자체의 특성을 갖는 사림들을 갖게 된 것은 '임청대' 이후 두 세대가 지난 16세기 중반부터다. 이때 순천사림을 대표하는 4명, 즉 배숙·정소·허엄·정사익을 승평사은으로 불렀다. 중앙관직에서 활동하는 자들에 대해 지방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닦고 후학을 가르치던 이들을 사림으로 평가한 것이다.

『혈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1759)에는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이 쓴 「경현당기(景賢堂記)」(1564)와 「옥천서원기(玉川書院記)」(1571)의 두 기문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이들의 행적 일부를 볼 수 있다.

「경현당기」

선생(김굉필)이 돌아가신 지 근 60년이 흘렀다. 계해년 겨울에 부사 이정이 이(임청대)의 복구를 책임지고 민간에서 그때의 이야기를 참고해보니, 임청대 기문은 선생의 것이 아니고 매계 조위의 필(筆)인 것을 알게 되었다. 매계 역시 점필재 문사로 처음 용만(龍灣)에 유배되었으나 선생과 같이 이곳으로 옮겨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교유하다가 질병으로 일 년 먼저 죽어 선생이 제문을 지었다. 부사 이정이 그 뜻을 기리고 사모하여 세 칸의당을 짓고 '경현'이라 이름하였다. 매계 역시 현인이므로 그 사연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당 아래 별도의 가옥 한 칸을 세우고 조그만 비를 세우고자 하여 나(기대승)에게 와서 이 글을 써달라고 하니 감히 사양을 못 하고 이 글을 삼가 쓴다.

「옥천서원기」

1563년 겨울에 구암 이정은 한훤당 김굉필 선생이 이곳에 유배되어 죽은 것을 개연히 여겨 추모하다가 우연히 임청대 기문 한 편을 구했는데,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임청대 기문이 매계 조위의 필임을 알게 되어 그 터에 세 칸의 경현당을 지었다. 또 다음해(1566)에 지방사림들이 그를 찾아와 정사(精舍) 세우기를 바라므로 이를 승낙하여 당 오른쪽에 민가의 땅을 관전과 바꾸어주는 조건으로 수용하였다. 퇴계 이황 글씨로 된 편액을 단 옥천정사를 지어 2월과 8월 두번째 정일(丁日)에 제사케 하였으며, 좌우로는 재(齋)를 강학의 장소로 삼았다. 다음해(1566년) 이정의 후임으로 온 김계(金啓)는 선생의 위패가 한편으로 치우쳐 있던 것을 중앙으로 바로잡았다. 순천사림들은 사액을 청하여 1568년에 '옥천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1564년에 경현당이 세워지고, 이듬해에 강학을 할 수 있는 재를 갖춘 옥천정사(3년 후에는 서원)가 세워지는 등 사림의 근거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정사를 짓는 데는 지방관 이정의 지원과 배숙·정소·허엄·정사익 등 지방사림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 업적으로 후에 이정에 대한 선정비가 세워졌다. 사은 중 정소·허엄·정사익 그리고 문집을 남긴 배숙 순으로 그들의 행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소(1518~1572)는 명종 때의 진사로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중함(仲涵), 호는 청사(靑莎)이다. 관관 유침(惟沈)의 둘째 아들이며 좌의정을 지낸 철(澈)의 중형(仲兄)이다. 서울에서 출생하여 12세 때 형인 자(滋)와 함께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35년에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였고, 1545년의 을사사화로 부친과 형이 함께 화를 입어 유배되는 등 집안이 화를 입자 관직에 뜻을 버리고 순천읍 청사 농막(農幕)으로 와서 은거하며 평생을 지냈다. 묘는 해룡면에 있다. 아들은 원명(元溟)과 상명(翔溟)으로 이들의 손자대에 이르러 별교와 광양으로 각기 이거하였다.(『허수씨족보』)

허엄의 자는 구숙(久叔), 호는 강호(江湖)로 정소와 마찬가지로 모재 김안국의 문하에서 수

업했다고 한다. 양천 허씨 입향조인 16세 교위공 형의 둘째 아들인 희인의 아들이다. 희인의 호는 반구정으로 서울 연지동에서 살다가 부친과 함께 이곳으로 왔다. 구암 이정이 그의 행장을 찬하였는데, 이는 아들 엄과 구암의 친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황남악부』, 「효림행」)

정사익은 앞서 소개한 정승복의 여섯 아들 중 둘째이다. 김난상(金鸞祥 : 1507~1570, 영천)의 문인으로 예제에 맞는 여묘생활을 하는 등 효행으로 조정에 천거되었다. 김난상은 1547년에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한때 유배되었으나 선조 초에 대사성에 이른 학자다.

진사 배숙(1516~1589)의 자는 수옥(壽玉), 호는 매곡(梅谷)으로 이곳 성주 배씨의 입향조가 된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 1491~1553)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부상(父喪)에 삼 년간 여묘를 살면서 애훼(哀毀)의 성의를 다하였고, 모친의 병환에 5개월간 시탕(侍湯)을 극진히 하였다. 1546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성균관에서 7년 있었다. 이 기간에 요승(妖僧) 보우(普雨)를 척(斥)하라는 소(疏)¹⁾를 올렸다. 1564년에 승평교수관이 되어 순천 매곡으로 이거하였다. 이듬해에는 옥천에 있는 임청대 재건의 역(役)을 주동(主董)하였고, 1556년에는 해룡면 매곡리에 매곡당을 지었다. 유집 『매곡집』이 있으며 묘는 해룡면 미계촌이다. 성의명(誠意銘)·정심명(正心銘)·수신명(修身銘)·제가명(齊家銘) 등 자명(自銘)을 지어 생활하였고, 「태극설(太極說)」을 지어 음양의 도를 연구하였다.²⁾

당시 순천사림 중 문집을 남긴 자가 흔하지 않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더욱 그러하므로 여기에서는 『매곡집』에 대해 좀더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1942년에 발간된 『매곡집』은 4권 1책이며, 「매곡집중간서(梅谷集重刊序)」는 1942년에 정기(鄭琦)가 썼다. 서문에 따르면 이 문집은 원래 말아들 송암(松菴) 영담(齡聘)이 만들었으나 도중에 타서 없어져 실전(失傳)하다가 1940년에 우연히 고가(古家)에 남은 휴지 중 초본이 있어 전서는 아니나 다시 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매곡집구서(梅谷集舊序)」는 1610년에 부사(府使) 유영순(柳永詢)이 배숙의 아들 영담의 부탁을 받아 썼다. 그는 1610년 윤3월부터 1611년 8월까지 재직하였다. 향교에 그를 위해 세운 거사비(去思碑)가 있다. 「매곡초당기(梅谷草堂記)」(1566)에는 배숙 자신이 매곡을 호로 한 이유와 그가 지어 거한 초당의 내력을 적고 있다.

갑자년(1564)에 교수로 순천에 온 후 이곳 해룡면을 죽히 초어지소(樵漁之所)로 여겨 초당 하나를 지었는데, 양쪽에 낭(廊)이 있고 가운데에 청사가 있는 4칸 집이다. 정원에는 죽·송·국·난 등 다양하게 있으나 그 중 매를 가장 아꼈는데, 학문이 현인에 미치지 못하고 행실이 은사(隱士)만 못한 것이 마치 꽃 중에서도 매화의 그러한 것과 닮았다는 점과 송백(松柏)의 겨울과 도리(桃李)의 봄 중간에 피는 것이 중용의 성질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초당에 정소·허엄·원진해 등 친우들이 방문하여 글을 짓곤 하였다.³⁾ 청사 정소도 초당을 가지고 있어 배숙이 이에 대한 글을 지었다. 청사의 초당은 매곡의 ‘초당(草堂)’과 달리 ‘초당(艸堂)’으로 표기한 듯하다.

「제청사초당(題菁莎艸堂)」

-
- 1) 배숙, 『매곡집』 권2, 「斥妖僧普雨疏」.
 - 2) 『매곡집』 권2, 銘條, 雜著條.
 - 3) 『매곡집』 권1.

옛것을 익혀 쌓은 것이 지금에 이르렀네.
 선생의 학문경지는 이중에서 찾아지려나.
 자고가는 저 구름 어느 산에 머무르려나.
 성기에 오는 비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읽는다.
 깊은 골짜기의 얼음이 옥을 만들고
 앞 계곡물이 떨어져 다듬잇돌 되듯이
 널리 공을 이루었으므로 밝은 앞날이 보이고
 책이 가득한 서재의 창에서 지식의 폭을 알겠다.

學古工夫 積至今 師門眞境 箇中尋
 宿雲移去 何山意 疎雨得來 此竹心
 古壑氷凝 因作玉 前溪水落 自爲砧
 事功全地 知爻象 十載書窓博物襟

『여청사동숙초당창수(與菁莎同宿草堂唱酬)』
 눈속에서 피어난 매화는 봄이 보낸 믿음이고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달은 밤이 찾는 맹세다.
 성군이 다스리는 세상엔 뛰어난 선비가 나오고
 분에 넘치는 것을 구하면 작은 공영에 머문다.

吐雪新梅 春送信 入窓明月 夜尋盟
 聖世甘爲 遺逸士 肯求分外 小功名

처음 것은 청사초당에 대한 배숙의 글이고, 두번째 것은 매곡이 자신의 초당에서 청사와 함께 술을 들며 지은 글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적극 지원한 부사 이정과 친분이 두터웠으므로 그를 위한 제문도 남겼다.⁴⁾ 그밖에 『매곡초숙기(梅谷草續記)』가 있는데, 하나는 1566년에 청사가 쓴 것이고, 또 하나는 1572년에 숙의 재종질(再從姪)인 배인범(裴仁範)이 쓴 것이다.

배숙을 중심으로 한 세계는 다음과 같다.

배숙의 세계도

4) 『祭龜巖李公文』(1571, 순천에 사는 진사 배도와 생원 許思曾 등은 귀암 이 선생 靈 앞에 근엄히 술과 음식을 올립니다).

『태극집』 권2, 잡저(雜著)에는 그의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는 글인 「태극설」이 실려 있다. 이것은 주역의 태극과 무극의 관계에 대한 설로 주역·시경·주자설 등을 인용하여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무극은 공허한 데로 빠져 모든 일의 근본이 될 수 없고, 무극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도 사물이 되어 모든 변화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여 그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였다.

조대성(1520~1566)은 사은에 속하지 않지만 역시 당대에 그들과 어울렸던 순천사림의 하나이다. 그의 자는 성지(成之), 호는 매창(梅窓)이며, 병조판서를 지낸 옥천군 조원길의 6세손이다.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명종때 종6품 여절교위(勵節校尉)에 피천(被薦)된 뒤 정조 때 호조좌랑에 추증되었다. 특히 청사 정소, 사제당(思齊堂) 안처순(安處順)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고 서로 강학하여 사람들이 이들을 이성형제(異姓兄弟)라 칭했다고 한다.⁵⁾

5) 『玉川趙氏忠孝錄』(1844), 「梅窓公事實」 참조.